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활동]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해보자.

훤이[훤치]	훤어[훤터]	엷는[엷는]
끓고[끓코]	끓는[끓른]	

[자료]

-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되거나 뒤의 자음과 그다음 음절의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음.
-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뒤의 자음이 연음되면 일어나지 않음.

- ① ‘훤이[훤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ㅄ’이 ‘ㅈ’으로 교체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군.
- ② ‘훤어[훤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ㅄ’이 연음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③ ‘엷는[엷는]’은 ‘ㅄ’ 중 뒤의 자음인 ‘ㅈ’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것이군.
- ④ ‘끓고[끓코]’는 ‘ㅎ’과 그다음 음절의 ‘ㄱ’이 축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⑤ ‘끓는[끓른]’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남은 ‘ㄹ’로 인해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군.

36. <보기>를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언이 포함될 것.
-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될 것.

- ①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 ② 대학생이 된 누나가 주인공을 맡았다.
- ③ 학생이었던 삼촌은 마흔 살이 되었다.
- ④ 큰언니는 성숙했지만 성인이 아니었다.
- ⑤ 나무로 된 책상을 나는 그에게 주었다.

3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준	분류
㉠	가변어, 불변어
㉡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자, 이제 아래 문장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

학생: _____ [A] _____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가변어 한 개, 불변어 네 개를 포함합니다.
- ② ‘나비 하나를’은 ㉡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두 개, 관계언 한 개를 포함합니다.
- ③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아홉 개의 품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 ④ ‘밝은’과 ‘잡았어’는 ㉡이나 ㉢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됩니다.
- ⑤ ‘그’와 ‘또’는 ㉡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언이고, ㉢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관형사, 부사입니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널리 쓰이는 것에 ‘-(으)ㄴ’이 있다. 접미사 ‘-(으)ㄴ’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으며 ‘뉘음, 기쁨’과 같은 단어를 만든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간에 ‘-(으)ㄴ’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으)ㄴ’이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고 이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무덤’이 기원적으로 ‘묻-’에 ‘-엄’이 붙어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므로 ‘무덤’에서 어간의 원형인 ‘묻-’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그런데 명사형 어미에도 ‘-(으)ㄴ’이 있어서,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 결합한 단어들 중에는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에서 앞에 나오는 ‘웃음’은 관형어 ‘시원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이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웃음’은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부사어 ‘크게’의 수식을 받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크게 웃음’을 ‘크게 웃었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미 ‘-(으)ㄴ’은 ‘-았/었-’, ‘-겠-’, ‘-(으)시-’ 등 대부분의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 파생 명사와 ㉡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 형태적으로 구별되었다. 예를 들어 ‘짜 그림과[땅을 그림과]’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그림’은 동사 ‘(그림을) 그리다’의 명사형인데, ‘그리다’의 파생 명사는 ‘그리-’에 ‘-ㄴ’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림’이었다.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으)ㄴ’과 명사형 어미 ‘-음/음’이 형태상으로 구분되었다.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접미사 ‘-(으)ㄴ’과 어미 ‘-음’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접미사 ‘-(으)ㄴ’과 어미 ‘-음’이 쓰였다. 그러다가 ‘·’가 소실되고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등 여러 변화를 입어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모두 ‘-(으)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8. 윗글을 통해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나이도 어린 동생이 고난도의 춤을 잘 춤이 신기했다.
 ㄴ. 차가운 주검을 보니 그제야 그의 죽음이 실감이 났다.
 ㄷ. 나는 그를 조용히 도움으로써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했다.
 ㄹ.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앓이 오히려 감상을 방해하기도 한다.
 ㅁ. 그를 전적으로 믿음에도 결과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

- ① ㄱ에서 ‘고난도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명사이고, ‘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 ② ㄴ에서 ‘죽음’은 접미사 ‘-음’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주검’과는 달리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③ ㄷ에서 ‘도움’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④ ㄹ에서 ‘앓이’의 ‘-ㄴ’은 ‘알-’에 붙어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었다.
- ⑤ ㅁ에서 ‘믿음’의 ‘믿-’과 ‘-음’ 사이에는 선어말 어미 ‘-었-’이 끼어 들 수 있다.

39.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중세 국어 용언들의 ㉠과 ㉡을 바르게 추정된 것은?

	㉠	㉡
① (물이) 얼다	어름	어름
② (길을) 걷다	거름	거름
③ (열매가) 열다	여름	여름
④ (사람이) 살다	사름	사름
⑤ (다른 것으로) 곱다	꺾름	꺾름

[40~43] 다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김 기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 기자: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을 수 없습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일부를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진행자: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여러 매립지의 포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행규칙은 그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바뀐 시행규칙에 맞추어 원활한 소각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매립지에 묻히는 생활 폐기물의 양을 지금의 2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감소하는 양이 크군요. 제가 볼 때는 매립지의 포화 시점을 늦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소각 시설은 충분한 편인가요?

김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소각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얼마 전, 소각 시설의 후보지로 선정된 △△ 지역 주민의 얘기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 이렇게 갑자기 우리 지역이 소각 시설의 후보지로 선정되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김 기자: 그리고 ㉠ 주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진행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네요. 이번에는 박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을까요?

박 기자: 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죠.

진행자: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곳은 공원이 아닌가요?

박 기자: 네, 맞습니다. 지상은 이렇게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동영상을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공원의 지하에는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 시설의 지하화로 주민들이 우려했던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소각 시설의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제 생각에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쳤나요?

박 기자: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주민들에게는 소각 시설 설치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주민들이 소각할 때 생기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어요?

박 기자: ○○시 소각 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

기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시는 소각 시설과 관련한 앱을 만들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지금 그 앱을 확인할 수 있나요?

박 기자: 네, 화면 보시죠. 이렇게 ㉠ 앱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원하는 내용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선 ㉡ 처리 공정을 누르면,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 대기 오염 농도를 누르면, 수시로 바뀌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각 시설에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다면 ㉣ 시설 견학 신청을, 제안하려는 의견이 있다면 로그인을 한 후 ㉤ 의견 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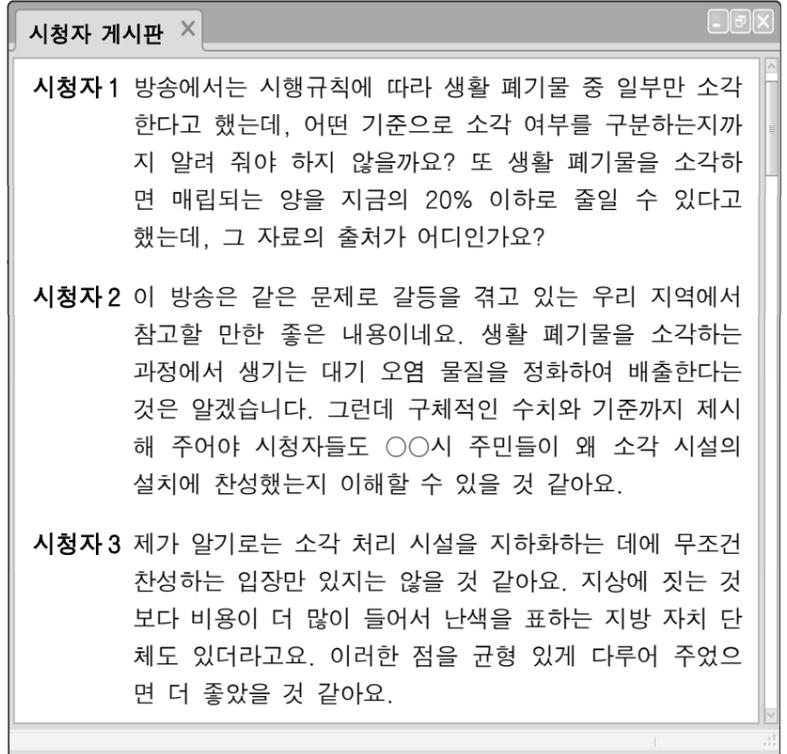
40. 위 프로그램을 시청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김 기자가 언급한 정보를 자신이 과거에 보도한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군.
- ② 김 기자는 인터뷰를 제시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군.
- ③ 박 기자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언급된 문제 상황이 해결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군.
- ④ 진행자는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
- ⑤ 진행자는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정보를 종합하여 해결 방안에 내재한 문제점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군.

41. 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할 때, ㉠ ~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는 생산자가 미리 정해 놓은 메뉴의 순서에 따라서만 정보 탐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생활 폐기물의 처리 공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수시로 바뀌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변화하는 정보에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시설을 견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미리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소각 시설에 대한 의견 제안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다음은 위 프로그램이 보도된 이후의 시청자 게시판 내용이 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청자 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효과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였다.
- ②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점검하였다.
- ③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의 지하화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점검하였다.
- ④ 시청자 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청자 2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⑤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 과정과 관련하여,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 지하화의 비용과 관련하여,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였다.

43.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지시 표현, 종결 표현 등에 변화가 일어난다. 가령 ㉠을 간접 인용이 포함된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주민들이 [A] 성토했습니다.

- ①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 ② 저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 ③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 ④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 ⑤ 저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44~45] (가)는 사진 동아리 학생들이 진행한 온라인 화상 회의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준영'이 만든 발표 자료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수: 드디어 다 모였네. 모임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니 참 편리하다.

가람: 맞아. 그런데 현수는 카메라를 안 켜네? 대면 회의 대신에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니 모두 카메라를 켜고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수: 앗, 그렇네.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켜게.



준영: 좋아. 내 목소리 잘 들려? (화면 속 학생들을 살피며) 다들 잘 들리는 것 같네. 오늘은 축제에서 사용할 동아리 활동 소개 자료에 대해 논의하자. 혹시 일정표 갖고 있니?

예나: 내가 파일로 가지고 있어. 지금 바로 파일 전송할게.

파일 전송: 동아리_활동_발표회_일정표.hwp(256 KB)

준영: 고마워. 예나가 보낸 파일을 보니 발표 시간이 짧아서 올해 진행한 행사들만 슬라이드로 간단히 소개하면 될 것 같아.

예나: 그럼 계절에 따라 진행한 행사 사진을 각 슬라이드에 넣으면 어때?

현수: 좋은 생각인데, 나한테 봄에 '○○ 공원 사진 촬영'에서 찍은 동영상 있어. 잠시 내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 줄게. (화면을 공유한다.) 이게 괜찮으면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삽입하면 어떨까?

가람: 오, 난 좋은데? 이걸 삽입하면 행사 모습을 사진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어. 여름 행사는 '사진 강연'이지?

현수: 맞아. 아까 예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행사부터는 사진을 슬라이드에 넣어서 청중에게 보여 주면 될 것 같아.

가람: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강연이었는데를 알 수 없잖아. 강연 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무슨 주제로 강연했는지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예나: 좋아. 나도 동의해. 그럼 가을에 한 '옛날 사진관' 행사도 설명을 간단히 제시하자.

준영: 근데 그 행사는 촬영한 사진들을 궁금해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동아리 블로그에 사진이 많이 있으니 블로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도 삽입하면 어떨까?

예나: 그게 좋겠다. 마지막 행사는 '장수 사진 봉사 활동'인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으니 슬라이드에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행사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가람: 그렇게 하면 슬라이드에 담긴 설명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 것 같아. 느낀 점은 발표자가 따로 언급만 하는 것으로 하자.

준영: 그러자. 내가 초안을 만들 테니 나중에 함께 검토해 줘.

(나)

<p>슬라이드 1</p> <p>사진 동아리 △△의 봄</p> <p>△△ 부원 모두가 함께한 '○○ 공원 사진 촬영'</p>	<p>슬라이드 2</p> <p>사진 동아리 △△의 여름</p> <p>김□□ 작가의 '사진 강연'</p> <p>· 강연 일시: 20××.××.××. · 강연 장소: 본교 소강당</p>
<p>슬라이드 3</p> <p>사진 동아리 △△의 가을</p> <p>복고를 주제로 많은 학생들을 촬영한 '옛날 사진관'</p> <p>← 사진 더 보기 (동아리 블로그로 이동)</p>	<p>슬라이드 4</p> <p>사진 동아리 △△의 겨울</p> <p>'장수 사진 봉사 활동'</p> <p>마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건강한 미소를 사진에 담아낸 재능 기부 활동</p>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현수'는 대면 회의보다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장점을 들어 온라인 화상 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가람'은 회의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회의의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 '준영'은 화면을 살피며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이 잘 전달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 '예나'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현수'는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며 슬라이드에 동영상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5. (가)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공원 사진 촬영' 행사 모습을 청중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슬라이드 1'에 행사 사진을 추가한다.
- '사진 강연'의 내용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슬라이드 2'에 강연 주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 진행한 행사를 청중에게 계절 순서에 맞게 제시하기 위해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3'에 제시된 행사를 맞바꾼다.
- '옛날 사진관' 행사와 관련하여 청중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시하기 위해 '슬라이드 3'에 제시된 사진을 삭제한다.
- '장수 사진 봉사 활동'이 동아리 부원들에게 주는 의미를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슬라이드 4'에 행사에서 느낀 점을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오답풀이] ② 학생 3은 다목적실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운영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표현 전략을 파악한다.

(나)의 2문단에서 제도의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가 식품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이 번거롭다는 점과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 이력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으로 나누어서 소비자가 식품 이력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1문단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취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식품을 이력 정보 의무 등록 식품과 자율 등록 식품으로 나누고 이 중 자율 등록 식품의 등록률이 낮다는 점을 제도의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식품을 의무 등록 식품과 자율 등록 식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3문단에 관계 기관에서는 식품 이력 정보의 조회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 업체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나)의 3문단에서 관계 기관에서는 식품 이력 정보의 조회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력 정보 조회의 간소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글쓰기의 내용을 점검하고 조절한다.

(나)의 4문단과 <보기>를 비교하면, <보기>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보기>는 기획 연재 의도를 살려 글을 쓰면 좋겠다는 편집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III-1은 설문 조사 결과로, 소비자가 언론 매체, 교육 또는 홍보 등의 경로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3문단에는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III-1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I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식품 포장지에서 찾기도 어렵고 식품 이력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이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나)의 2문단에서 식품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이 번거로워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I은 식품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일부 기업이 QR 코드를 활용해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 (나)의 3문단에서 식품 이력 정보의 조회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QR 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③ II는 식중독 사건이 학교 급식에서 발생했는데, 문제가 된 식품은 자율 등록 대상으로 식품 업체가 해당 식품의 이력 추적을 위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나)의 1문단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초래된 문제점의 사례를 추가할 수 있다.

⑤ III-2는 식품 업체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인프라 미흡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나)의 3문단에 정부가 참여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인프라 확충, 인력 지원 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①	36	①	37	④	38	④	39	①
40	⑤	41	③	42	⑤	43	③	44	②
45	②								

35. [출제의도] 접미법이 있는 단어의 발음에 대해 이해한다.

‘홀이’는 ‘무엇을 훔는 데에 쓰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홀-+-이’로 분석된다. 용언의 어간 ‘홀-’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결합된 경우로, ‘트’이 ‘ㅈ’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홀치]로 발음된다. 하지만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에 대해 이해한다.

‘화단도 아닌 곳에 전달래꽃이 피었다.’에서 서술어 ‘피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또한 관형사절인 ‘화단도 아닌’ 속에 보어 ‘화단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 자리 서술어가 포함되면서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문장은 ①이다.

37. [출제의도] 단어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밝은’은 ㉠에 따라 분류하면 용언, ㉡에 따라 분류하면 형용사이다. 한편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용언, ㉣에 따라 분류하면 동사이다. 따라서 두 단어를 ㉠이나 ㉢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명사 파생과 명사절을 이해한다.

‘얇’은 해당 절에서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 부사어 ‘얇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얇’의 ‘-으’는 명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형 어미에 해당하므로, ‘-으’이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접미사와 어미를 이해한다.

‘얼-’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는 ‘어름’으로,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활용형은 ‘어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③ ‘걸-’에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는 각각 ‘거름’, ‘어름’으로, ‘-음’이 결합한 활용형은 각각 ‘거름’, ‘어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⑤ ‘살-’, ‘굴-’에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는 각각 ‘사름’, ‘구름’으로, ‘-음’이 결합한 활용형은 각각 ‘사름’, ‘구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내용을 이해한다.

제시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김 기자가 전달한 정보와 박 기자가 전달한 정보를 진행자가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④ 진행자는 김 기자가 전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그것이 매립지의 포화 시점을 늦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고, 박 기자가 전달한 동영상과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래도 소각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대기 오염 농도를 통해 정보의 수용자는 수치로 바뀌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 소각 시설’ 앱에서 정보의 수용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앱 메인 화면에서 정보의 수용자는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자가 미리 정해 놓은 메뉴의 순서에 따라서만 정보 탐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과정과 관련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 중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한다는 것은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농도의 구체적인 수치 및 안전과 관련한 대기 오염 물질 농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려면 지상에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난색을 표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있다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균형 있게 정보를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달한 정보가 사실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점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에 사용된 표현을 이해한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지시 표현, 종결 표현 등에 변화가 일어난다. ‘주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를 간접 인용이 포함된 문장으로 바꿀 경우, ‘주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성토했습니다.’와 같이 바꿀 수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가람’은 온라인 화상 회의가 대면 회의를 대신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카메라를 켜고 회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카메라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가람’이 회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제한됨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현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화상 회의를 관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대면 회의에 비해 온라인 화상 회의가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③ ‘준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냐고 질문한 뒤 화면 속의 학생들을 살펴며 음성이 잘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④ ‘예나’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 발표회 일정표를 ‘준영’에게 제공하고 있다. ⑤ ‘현수’는 ‘○○ 공원 사진 촬영’ 행사 동영상이 담긴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며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동영상 상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가)에서는 ‘사진 강연’ 행사와 관련하여 슬라이드에 제시할 내용을 의논하며, 청중이 어떤 강연이었는데지를 알 수 있도록 강연의 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강연의 주제를 제시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나)의 ‘슬라이드 2’에는 강연 주제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 공원 사진 촬영’ 행사와 관련하여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동영상을 삽입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슬라이드에 담긴 설명이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수 사진 봉사 활동’에서 느낀 점을 발표자가 따로 언급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슬라이드 4’에 동아리 부원들이 행사에서 느낀 점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제 1 교시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발음되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꽃’이 조사 ‘이’, ‘만’, ‘도’와 결합한 것을 발음되는 대로 적으면 ‘꼬치’, ‘꼴만’, ‘꼴또’이므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꽃’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적도록 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발음을 고려한 대표 형태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표기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언제나 어법에 따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표 형태로는 여러 발음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씨요], [인는데요], [인떠라고요]와 같이 발음한 것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기 위해 대표 형태를 선택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있-’, ‘인-’, ‘인-’ 중에 ‘인-’을 대표 형태로 본다면 [인는데요]는 비음화, [인떠라고요]는 된소리되기로 둘 다 교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씨요]는 설명할 수 없다. ‘인-’을 대표 형태로 본다면 [이씨요]와 [인떠라고요]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있-’을 대표 형태로 선택하면 [이씨요]는 음운 변동 없이 연음된 것으로, [인는데요]와 [인떠라고요]는 모두 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있-’을 대표 형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놓으니’, ‘놓다’는 [노으니], [노타]로 발음되는데 어간을 ‘놓-’이라는 대표 형태로 고정하여 적고 있다. 왜냐하면 대표 형태가 ‘노-’라면 [노타]를 설명할 수 없지만 ‘놓-’이라면 [노으니]는 탈락, [노타]는 축약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들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덥고, 장마의 시작과 끝이 언제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 ① ‘들어’를 발음할 때는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군.
- ② ‘더운’과 ‘덥고’는 어간의 의미가 같지만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적지 않은 경우이군.
- ③ ‘여름’, ‘장마’는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군.
- ④ ‘끝이’를 ‘꼬치’로 적지 않은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때문이군.
- ⑤ ‘부릴’의 어간은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해 표기한 것이군.

36. ㉠을 고려하여 <보기>의 ㉠ ~ ㉢의 대표 형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 다음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의 발음이다.

어미 어간	-고	-아서	-지만	-는
㉠	[각꼬]	[까까서]	[각찌만]	[깡는]
㉡	[달코]	[다라서]	[달치만]	[달른]
㉢	[싸코]	[싸아서]	[싸치만]	[싼는]
㉣	[할꼬]	[할타서]	[할찌만]	[할른]
㉤	[갑꼬]	[가파서]	[갑찌만]	[감는]

- ① ㉠: 대표 형태가 ‘각-’이라면 [각찌만]과 [깡는]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깡-’이라면 둘 다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코]와 [달치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③ ㉢: 대표 형태가 ‘싼-’이라면 [싸코]와 [싸아서]를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쌍-’이라면 둘 다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④ ㉣: 대표 형태가 ‘할-’이라면 [할꼬]와 [할찌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할-’이라면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⑤ ㉤: 대표 형태가 ‘갑-’이라면 [갑꼬]와 [감는]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갑-’이라면 둘 다 교체로 설명할 수 있겠군.

37. <보기 1>의 ㉠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연결 어미 ‘-고’의 쓰임은 다양하다. 먼저 ㉠ 앞 절과 뒤 절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경우가 있다. 또한 ㉡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나, ㉢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보기 2>

- 그들은 서로 손을 쥐고 팔씨름을 했다. ㉠
-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
- 나는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가 벌에 쏘이고 통통 부었다. ㉣
- 그 책은 내가 읽을 책이고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

- ① ㉠: (a), (c) ② ㉡: (b), (e) ③ ㉢: (d), (e)
- ④ ㉣: (a), (b) ⑤ ㉤: (c), (d)

38. <보기>의 ㄱ ~ 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ㄱ. 신중한 그는 고민을 가족들과 의논했다.
 ㄴ. 너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좀 씻어!
 ㄷ. 네가 들은 소문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 ① ㄱ의 '신중한'은 안은문장의 필수 성분이군.
- ② ㄱ의 '가족들과'와 ㄷ의 '정말'은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군.
- ③ ㄴ의 '먹기'는 안긴문장의 부속 성분이군.
- ④ ㄴ의 '너는'은 안긴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군.
- ⑤ ㄷ의 '네가'와 '사실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39.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羅雲(나운)이 저머 노르술 즐겨 法(법) 드로물 슬히 너겨 허거 든 부테 즈로 니르샤도 從(중)흐습디 아니허더니 後(후)에 부테 羅雲(나운)이드려 니르샤디 부터 맞나미 𑖀(어)려브며 法(법) 드로미 𑖀(어)려브니 네 이제 사르믹 모물 得(득)하고 부터를 만나 잇느니 𑖀(어)테 게을어 法(법)을 아니 듣는다

- 「석보상절」 -

- [현대어 풀이]**
 나운이 어려서 놀이를 즐겨 법을 듣기를 싫게 여기니, 부처가 자주 이르셔도 따르지 아니하더니, 후에 부처가 나운이더러 이르시되, “부처를 만나기가 어려우며 법을 듣기 어려우니, 네가 이제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어찌 게을러 법을 아니 듣는가?”
- ① ‘부테’를 통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니르샤도’를 통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從(중)흐습디’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어려브며’를 통해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사르믹’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 43] (가)는 라디오 방송을 위한 진행표이고, (나)는 라디오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지역 이야기】 492화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
 초대 손님: 자율 주행 연구소장 최○○ 교수
 #1. 시범 사업을 △△시에서 하는 이유는?
 #2. 시범 사업의 성과는?
 #3. 향후 달라질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은?

(나)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 지역 이야기’ 492화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최○○ 교수님과 우리 △△시의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시는 관련 연구 시설이 있고, 도시의 도로 조건이 새로운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시의 입장에서 일반 대중교통의 운행이 힘든 시간대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리 지역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문가: 네, 맞습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 사전 체험단을 대상으로 운영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 네, 이번 사업을 통해 ㉢ 우리 연구소는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에 활용할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덕분에 운행 중 운전자의 개입 횟수를 줄여 자율 주행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사전 체험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10점 만점에 9.2점이더군요. ㉣ 시범 사업이 시민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네요. 교수님, ‘보이는 라디오’의 실시간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 사전 체험단에 참여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직접 남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군요. 자율 주행 버스에 안전 요원이 상시 탑승해 있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직접 운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다들 반가워하실 거예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을 소개해 주세요.

전문가: 네, 앞으로는 ㉤ 지역 주민 중 사전 체험단이 아니었던 주민도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원까지의 기존 노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청 정류장 등을 추가하여 노선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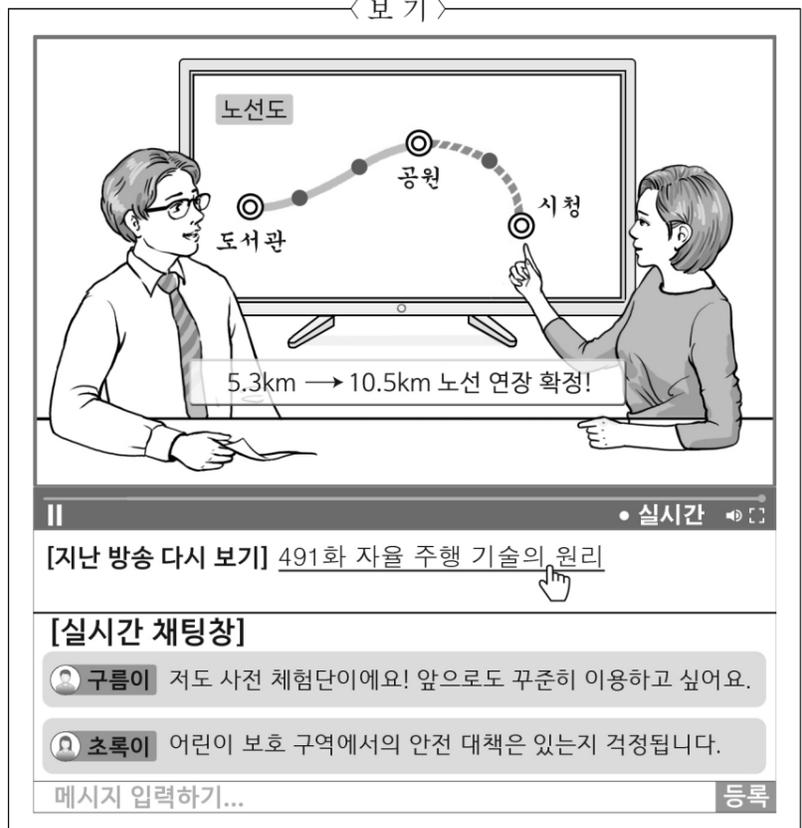
진행자: 아, 그렇군요. 최 교수님의 도움으로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 남기실 의견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의 ㉥ 청취자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40.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며 확인하고 있군.
 - ② '#1'에서 전문가는 방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두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군.
 - ③ '#2'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2'에서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고 있군.
 - ⑤ '#3'에서 진행자는 청취자들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군.

4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시범 사업을 운영한 주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격조사 '에'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하여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는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사 홈페이지 화면의 일부이다. (나)와 <보기>의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41. 다음은 ㉠의 일부이다. 청취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취자 게시판

청취자 1 자율 주행 기술 수준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자율 주행 버스가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오늘 방송에 안 나왔네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청취자 2 다음 달부터는 저도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공원에 갈 때 이용하면 무척 편리할 것 같아요. 버스 탑승 시간이 궁금했는데, 버스 시간표를 알려 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청취자 3 자율 주행 버스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시간에 귀가하는 우리 지역의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자율 주행 기술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 ① 청취자 1은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였다.
- ② 청취자 2는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③ 청취자 3은 방송에서 특정 내용이 강조된 의도를 추론하였다.
- ④ 청취자 1과 3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요청하였다.
- ⑤ 청취자 2와 3은 방송에서 제시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① (나)에서 언급된 시범 사업 성과가 <보기>에서는 자막으로 요약되어 있다.
- ② (나)에서 언급된 노선 정보가 <보기>에서는 시각 기호가 표시된 지도로 보충되고 있다.
- ③ (나)에서 언급된 정류장 추가에 대한 정보가 <보기>에서는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 ④ (나)에서 언급된 사전 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이 <보기>에서는 실시간 채팅창에 제시되어 있다.
- ⑤ (나)에서 언급된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지난 방송 내용이 <보기>에서는 다시 보기 하이퍼링크로 제공되고 있다.

4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44 ~ 45] (가)는 환경 동아리 블로그이고, (나)는 (가)를 참고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 제작 계획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화면 구성	화면 설명												
1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하여 시작 화면을 제시함.												
2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기후 행동 체크리스트</th> </tr> <tr> <th>항목</th> <th>체크</th> </tr> </thead> <tbody> <tr> <td>빈 교실 전등 끄기</td> <td>✓</td> </tr> <tr> <td>급식 남기지 않기</td> <td></td> </tr> <tr> <td>교실 계절별 적정 온도 유지하기</td> <td>✓</td> </tr> <tr> <td colspan="2">⋮</td> </tr> </tbody> </table>	기후 행동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빈 교실 전등 끄기	✓	급식 남기지 않기		교실 계절별 적정 온도 유지하기	✓	⋮		구체적 항목들을 제시하여 자신의 실천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기후 행동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빈 교실 전등 끄기	✓													
급식 남기지 않기														
교실 계절별 적정 온도 유지하기	✓													
⋮														
3		자신의 실천 일지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후 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강조하였다.
- 기후 행동의 국가 간 차이를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 인근 학교 동아리의 페트병 수거 현황을 소재목을 사용하여 부각하였다.
-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건수의 양적 변화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 기후 행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사진 자료를 사용하여 보여 주었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작자가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에 제시된 개인의 일상적 실천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기후 행동의 개념을 참고하여,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이미지와 문구로 시작 화면을 구성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꾸준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성공적인 실천 결과를 누적할 수 있는 일지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실천이 이어지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동아리의 정책 제안 활동을 참고하여,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기후 행동에 참여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기후 행동 확산의 중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실천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개인의 실천이 다른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겠어.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기가 나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3]에서 '나무 돌보미' 캠페인의 활동 내용과 참여 학생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나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②	37	④	38	④	39	③
40	④	41	⑤	42	②	43	①	44	④
45	④								

35.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부릴'의 어간은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는 형태인 '부리-'를 대표 형태로 선택해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들이'의 발음은 [드리]로, 음운 변동 없이 연음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더운'과 '덤고'는 어간의 의미가 같지만 어간을 '더우-'와 '덤-'의 두 가지 형태로 적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어름'과 '장마'는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끝이'를 '끄지'로 적지 않고 '끝'이라는 대표 형태를 선택하여 표기한 것은 의미 파악을 위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파악하기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고]와 [달치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고]와 [달치만]을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연결 어미 이해하기

③과 ⑥는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③에 해당하는 예이다.

38. [출제의도] 문장 구조 파악하기

ㄴ의 '너는'은 안근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從(종)후습디'에서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부테'에서 '부터'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니르샤도'에서 두 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어러브머'에서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인 '브'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르믹'에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 '익'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정보의 전달 방식 이해하기

(가)의 '#2'에 해당하는 (나)의 전문가의 말 중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에 해당하는 (나)의 진행자의 말 중 '우리 지역에 기반 시설이 ~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지요?'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며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에 해당하는 (나)의 전문가의 말 중 '연구자의 입장에서 ~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와 '시의 입장에서 ~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에서 전문가가 방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두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2'에 해당하는 (나)의 진행자의 말 중 '사전 체험단의 만족도 ~ 9.2점이더군요.'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에 해당하는 (나)의 진행자의 말 중 '마지막으로 다음 ~ 소개해 주세요.'에서 진행자가 청취자들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분석하기

'청취자 2'는 '공원에 갈 때 ~ 편리할 것 같아요.'에서

방송에서 제시한 자율 주행 버스에 관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고, '청취자 3'은 '자율 주행 버스가 ~ 도움이 되겠네요.'에서 자율 주행 버스에 관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에서 '운영된'의 피동 접사 '-되다'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 주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작년부터'의 보조사 '부터'는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의 격조사 '에'는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의 의존 명사 '만큼'은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사전 체험단이 아니었던 주민들'의 보조사 '도'는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에 따른 정보 전달 양상 이해하기

(나)에 언급된 시범 사업 성과가 <보기>의 자막에 요약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 언급된 노선 정보가 <보기>의 노선도에 시각 기호가 표시된 지도로 보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 언급된 시청 정류장 추가에 대한 정보가 <보기>의 화면에 전문가의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에 언급된 사전 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이 <보기>의 실시간 채팅창에 메시지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 언급된 지난 방송 내용이 <보기>의 지난 방송 다시 보기에 하이퍼링크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 표현 방식 분석하기

(가)에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건수 증가 추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구성 추론하기

(가)의 2문단 '인근 학교의 ~ 정책을 제안했습니다.'에 동아리의 정책 제안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만 (나) '4'의 '화면 구성'에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3문단 '실내 적정 ~ 전등 끄기'에 개인의 일상적 실천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나) '2'의 '화면 구성'에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문단 '이러한 기후 변화의 ~ 기후 행동입니다.'에 기후 행동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 (나) '1'의 '화면 구성'에 기후 위기를 보여 주는 이미지와 문구로 시작 화면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3문단 '꾸준히 실천하고 ~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에 꾸준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나) '3'의 '화면 구성'에 자신의 성공적인 실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일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문단 '무엇보다 기후 행동은 ~ 가장 중요합니다.'에 기후 행동 확산의 중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나) '3'의 '화면 구성'에 자신의 실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접속 조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며, 이때 나열된 단어나 구들이 하나의 명사구가 되어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이)랑, (이)며, 하고’ 등이 있다. 이 중 ‘와/과, (이)랑, (이)며’는 ‘봄에 개나리와 철쭉꽃과 진달래가 핀다.’에서처럼 결합하는 체언의 음운 환경에 따라 바뀌어 나타난다. 즉,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와, [A] 랑, 며’가 쓰이고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면 ‘과, 이랑, 이며’가 쓰인다. ‘(이)랑, 하고’는 체언이 나열될 때 마지막 체언에까지 결합할 수 있어서 ‘삼촌하고 이모하고 다 직장에 갔어요.’와 같이 쓰일 수 있다. 그런데 부사격 조사에도 ‘와/과’가 있기 때문에 접속 조사 ‘와/과’와 구분해야 한다. ‘나는 꽃과 나무를 사랑한다.’에서 접속 조사 ‘과’가 쓰인 ‘꽃과’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이와 달리 ‘나는 누나와 눈이 닮았다.’에서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 ‘누나와’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로, 생략할 수 없다.

중세 국어에서도 접속 조사는 현대 국어의 접속 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하고, (이)며, (이)여’ 등이 있는데 ‘와/과’의 결합 양상은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ㄱ. 나무와 꽃과 果實와는 [나무와 꽃과 과실은]

ㄴ처럼 중세 국어에서 ‘와’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고 ‘과’는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한다. ㄱ의 ‘果實와’에서처럼 ‘와/과’는 마지막 체언에까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마지막 체언과 결합한 ‘와/과’ 뒤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며, (이)여’는 ‘열거’의 방식으로, ‘하고’는 ‘첨가’의 방식으로 접속의 기능을 나타내었다.

35. [A]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시와 음악을 좋아한다.’에서 ‘시와 음악’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다.
 - ② ‘네가 벼루와 먹을 가져오너라.’에서 ‘벼루와’를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된다.
 - ③ ‘친구랑 나랑 함께 꽃밭을 만들었다.’에서 ‘랑’은 체언들을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④ ‘가방과 신발을 샀다.’에서 ‘과’는 부사격 조사로서 ‘가방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된다.
 - ⑤ ‘수박하고 참외하고 먹자.’와 같이 ‘하고’는 결합하는 체언의 끝 음절의 음운 환경이 달라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옷과 뵤와로 佛像을 꾸미스바도
[옷과 베로 불상을 꾸미었어도]
- ㉡ 子息이며 좋이며 집안 사르물 다 眷屬이라 흐느니라
[자식이며 좋으며 집안의 사람을 다 권속이라 하느니라]
- ㉢ 밤과 낮과 法을 니르시니
[밤과 낮에 법을 이르시니]
- ㉣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도흐며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 ① ㉠에서 ‘옷과 뵤와’는 접속 조사에 의해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있군.
- ② ㉡에서 ‘이며’는 열거의 방식으로 ‘子息’과 ‘좋’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③ ㉢를 보니, 접속되는 마지막 체언에 ‘와/과’가 결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와 ㉣를 보니, ‘와/과’ 뒤에 격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와 ㉣를 보니,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은 ‘과’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은 ‘와’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자료]의 단어들은 음운 변동 중 탈락이 일어난 예이다. 단어들을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 ㉡,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료]
 ㉠ ㅌ- + -어서 → ㅌ서[ㅌ서] ㉡ ㄷ글- + -ㄹ → ㄷ글[ㄷ글]
 ㉢ ㅈ- + -아 → ㅈ아[ㅈ아]

[분류 과정]

```

    graph LR
        A[자료] --> B{자음이 탈락하였나요?}
        B -- 예 --> C{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나요?}
        B -- 아니요 --> D[㉠]
        C -- 예 --> E[㉢]
        C -- 아니요 --> F[㉡]
    
```

- | |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38.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탐구 과제]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이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으로 바뀌었을 때의 높임 표현, 지시 표현, 인용 조사 등의 변화 탐구하기

[탐구 자료]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그가 어제 나에게 “내일 서울에 갑니다.”라고 말했다.	⇒	그가 어제 나에게 오늘 서울에 간다고 말했다. ... ㉠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했다.	⇒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 ㉡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이곳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했다.	⇒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그곳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 ㉢

- ① ㉠: ‘오늘’을 보니, 직접 인용절의 시간 부사가 간접 인용절에서는 바뀌어 나타났군.
- ② ㉠: ‘간다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에서 ‘그’가 ‘나’를 고려해 사용한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절에서는 바뀌어 나타나는군.
- ③ ㉡: ‘맡기라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이 명령문일 때 간접 인용절의 인용 조사는 ‘고’가 사용되었군.
- ④ ㉢: ‘그곳이’를 보니, 직접 인용절의 발화자인 ‘친구’의 관점으로 지시 표현이 바뀌어 나타나는군.
- ⑤ ㉢: ‘아름답다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의 감탄형 종결 어미는 간접 인용절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 바뀌어 나타났군.

39.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구성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지혜: 쉬고 있는 걸 보니 안무를 다 ㉠ 짚나 본데?

세희: 아니야, 잠시 쉬고 있어. 춤이 어려워서 친구들이 공연 중에 동작을 ㉡ 잇을까 싶어 걱정이야.

지혜: 그렇구나. 동작은 너무 멋있던데?

세희: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구성까지 어려우니까 몇몇 친구들은 그만 ㉢ 포기해 버리더라고.

지혜: 그럼 내가 내일 좀 ㉣ 고쳐 줄까?

세희: 괜찮아. 고맙지만, 오늘까지 ㉤ 마쳐야 해.

학생: [A]

- ① ㉠에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에 대해 추측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 ② ㉡에는 화자가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③ ㉢에는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화자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 ④ ㉣에는 화자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심리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⑤ ㉤에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43] (가)는 도서관에서 주관한 실시간 인터넷 강연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다매체 시대, 듣기는 또 하나의 독서’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할 △△학회의 이□□입니다. 강연에 앞서 독서 실태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하나 해 볼게요. 지금 보내 드리는 ㉠ 링크를 누르시면 답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 화면을 가리키며) 자, 결과가 나왔네요. 한 달 평균 3시간 이내로 독서한다고 답하신 분들이 많군요.

최근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은 ㉡ 지난 10년 사이에 약 20%나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채팅창의 답변을 확인하며)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정보를 얻는 전통적 방식인 종이책은 읽는 데에 오랜 시간과 강한 몰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 독서가 정보 습득의 중요한 수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휴대성 및 편의성을 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에만 활용하지 말고, 독서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최근 발표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일상 속의 독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한 독서 방식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아, 방금 채팅창에 ‘너무 바빠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성인의 독서 저해 요인 중 ‘시간이 없어서’가 두 번째로 높아요. ㉣ 그래서 제가 기존의 종이책이나 전자책 이외에 다른 독서 방식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디오북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우리는 주로 활자를 보고 읽으면서 독서를 하지만, 이는 소리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신경과학자들은 단어를 읽거나 듣거나 상관없이 ㉤ 뇌의 인지와 감정 영역이 모두 유사하게 자극된다고 말합니다.

오디오북은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독서 방식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책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자투리 시간도 독서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앱에서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출근길이나 산책 중에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독서가 가능한 것이죠. 휴식 시간이나 잠자리에서 편안히 이야기를 즐길 수도 있어요. 또한 오디오북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독서 동기를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종이책과는 다르게 훼손 위험이 낮고 손쉽게 저장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기 쉽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장시간 청취 시 청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라든지, 불법 복제로 인한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

그룹채팅 5

[‘동욱’ 님이 ‘다정’, ‘수예’, ‘해찬’, ‘형준’ 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애들아, 이번에 들은 인터넷 강연 내용을 학술제 때 발표하기로 했잖아. 만나기 어려우니 우리 발표 자료에 대한 회의는 여기서 할까?

다정: 맞아, 우리 너무 바빠. ㅎㅎ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수예 지난 번 회의에서 오디오북을 소개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도와주자고 했었지? 일단 종이책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면 어떨까?

해찬 독서율이 감소한 것은 다 아니까 그보다는 [슬라이드 1]에 독서 저해 요인을 그래프로 제시하여 한눈에 보여 주자.

수예 알겠어. 그런데 강연자님은 성인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셨는데 발표를 들을 대상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니 학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제시하면 어떨까? 내가 찾은 자료인데 한번 볼래?

수예 사진 파일 전송: 독서 저해 요인 분석 그래프(학생).jpg

동욱 와, 훌륭하네!^^ 그럼 [슬라이드 2]에서는 스마트폰이 독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전달하자. 이런 내용을 문구로 만들고, 효과음도 넣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때?

형준 그러자. 그리고 [슬라이드 3]에는 오디오북의 장점을 제시하자. 화면을 분할해서 장점을 항목화하여 표현해 볼까?

다정 멋진 생각이야. 그런데 오디오북이 독서 동기를 유발한다는 강연 내용은 정확한 근거를 보여 줘야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 오디오북 독자의 39%가 종이책이나 전자책 독서량도 늘었다는 자료를 찾았거든.

해찬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슬라이드 4]에는 강연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보여 주자. 화면 아래에는 자막을 넣어 강연 내용도 정리해 주고.

형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5]에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가 담긴 도서를 제공하는 오디오북 플랫폼을 소개할까? 이걸 내가 골라서 정리해 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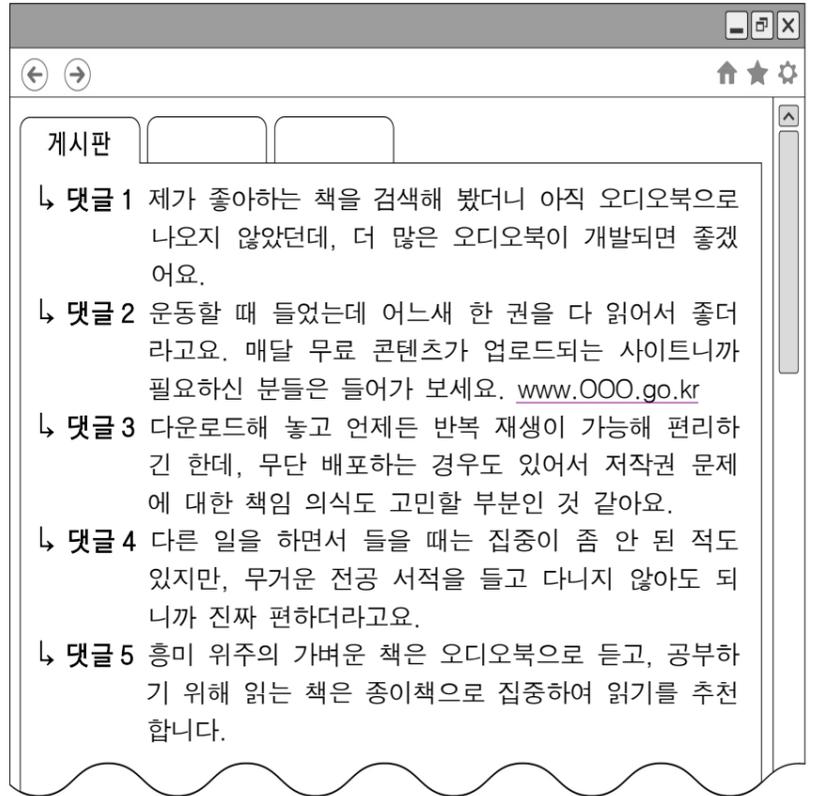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정보 생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용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수용자가 또 다른 정보 생산자가 되어 정보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특수 문자와 한글의 자음자로 된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 생산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 짓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연결 어미 '-면'을 활용하여 앞 절의 내용이 '답'을 할 수 있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보조사 '나'를 활용하여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의 감소 정도가 크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관용 표현 '두말할 나위가 없다'를 활용하여 독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⑤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뇌의 인지와 감정 영역'이 행위의 주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42. 다음은 오디오북 앱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가)를 들은 후 도서관 게시판에 단 댓글이다. 댓글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1은 오디오북 앱을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을 언급하며 더 많은 오디오북이 제작되기를 바라고 있군.
- ② 댓글 2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내용에 공감하며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댓글 3은 오디오북이 지닌 편의성이 초래할 수도 있는 윤리적 문제를 떠올리고 있군.
- ④ 댓글 4는 오디오북이 지닌 휴대성이 일상 속 독서 접근 기회를 높인다는 강연자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⑤ 댓글 5는 독서의 목적에 따라 오디오북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군.

43.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예'는 발표의 목적과 청중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1]에 강연을 통해 얻은 정보와 함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
- ② '동욱'은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슬라이드 2]에서 전달 내용을 문구로 제시할 때 음향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 ③ '다정'은 발표 자료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3]에 오디오북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④ '해찬'은 발표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슬라이드 4]를 문자와 영상을 결합한 복합 양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⑤ '형준'은 발표 자료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5]를 자신이 선별한 정보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44~45] (가)는 OO고등학교 학생회 블로그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회가 제작한 앱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을 담다!
 ○○고등학교 학생회 2022. 7. 00. 08:3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회에서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을 담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학생회는 우리 학교 숲의 사진과 텃밭의 탐구 자료를 정리하여 '생태 환경 자료집'을 e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숲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100여 가지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숲을 거닐면서 꽃과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찍어 놓으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그 사진들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학생회에서도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아 숲의 세계절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사진을 모아 이와 같은 영상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 사진을 올리려면 여기를 클릭!]

우리 학교에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텃밭도 있습니다. 텃밭에는 10여 가지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 식물들에 대해 탐구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번 자료집에는 텃밭의 식물들을 탐구한 자료들도 함께 실고자 합니다. 과학 동아리에서 작성한 식물 관찰 일지를 첨부하니 이 예시를 참고하여 자료를 작성해서 업로드해 주세요.

식물 관찰 일지.pdf

숲 사진과 텃밭 탐구 자료를 많이 업로드해 주실수록 자료집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텃밭 자료를 올리려면 여기를 클릭!]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공감하신다면 '공감하기'를 눌러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 52 공감하기 102

김○○: 블로그 자료들을 모은 우리 학교 숲과 텃밭에 대한 기록을 앱으로 만들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 학생회장: 좋은 생각이네요. 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우리 학교 프로젝트

- 학교 숲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학교 텃밭
 - 1학년
 - 2학년
 - 3학년
- 묻고 답하기
 - 들어가기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내용에 반응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 ②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한 파일을 첨부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③ 학교 숲 사진으로 만든 동영상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자료를 올리려는 학생들이 해당 게시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⑤ '공감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45. <보기>는 학생회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앱이다. 회의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OO고등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간의 기록!

- 학교 숲 '사진'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학교 텃밭 '탐구 자료'
 - 꽃 식물
 - 줄기잎 식물
 - 뿌리잎 식물
- 자료 더하기
 - 숲 사진
 - 식물 관찰 일지

- ① 프로젝트의 제목을 반영하여 앱의 제목을 바꾸고, 학교 이름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② 항목별로 모은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여 알려 주고, 구분되어 있지 않던 항목도 '학교 숲'과 '학교 텃밭' 항목으로 나누자.
- ③ '학교 텃밭' 항목의 메뉴를 나누는 기준을 학년에서 식물의 종류로 바꾸어 탐구 자료를 식물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
- ④ '학교 숲' 항목은 사진을 연도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계절별로 확인할 수 있게 메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⑤ '묻고 답하기' 항목을 '자료 더하기' 항목으로 바꾸어 숲 사진과 식물 관찰 일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④	36	③	37	①	38	④	39	②
40	⑤	41	⑤	42	④	43	③	44	②
45	②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접속 조사 파악하기
‘가방과 신발을 샀다.’에서 ‘과’는 ‘가방과 신발’을 명사구로 만드는 접속 조사로, ‘가방과’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① ‘나는 시와 음악을 좋아한다.’에서 ‘시와 음악’은 접속 조사 ‘와’에 의해 하나의 명사구가 되어 동일한 문장 성분, 즉 목적어로 기능한다. ② ‘네가 버루와 맥을 가져오너라.’에서 접속 조사와 결합한 ‘버루와’를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된다. ③ ‘친구랑 나랑 함께 꽃밭을 만들었다.’에서 ‘랑’은 체언 ‘친구’와 ‘나’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⑤ ‘수박하고 참외하고 먹자.’에서 ‘하고’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수박’,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참외’와 결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접속 조사 파악하기
㉠의 접속되는 마지막 체언인 ‘낮’은 ‘과’와 결합하였다.

① ㉠의 체언 ‘웃’, ‘뵈’는 접속 조사 ‘와/과’에 의해 이어져서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었다. ② ㉠의 ‘子息’, ‘종’은 접속 조사 ‘이’에 의해 이어졌는데 이때 ‘이’는 열거의 방식으로 쓰였다. ④ ㉠의 ‘뵈와로’는 체언과 접속 조사가 결합한 ‘뵈와’에 격조사 ‘로’가 결합하였으며, ㉠의 ‘나뵈’는 체언과 접속 조사가 결합한 ‘나와’에 격조사 ‘이’가 결합하였다. 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인 ‘밤’, ‘낮’, ‘엄’은 ‘과’와 결합하였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인 ‘혀’, ‘니’, 그리고 ‘근’으로 끝나는 체언인 ‘입시울’은 ‘와’와 결합하였다.

37. [출제의도] 음운의 탈락 파악하기

‘떠서’는 용언의 어간 말씀 ‘-’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으며, 이는 모음 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종아[조아]’는 용언의 어간 말씀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으며, 이는 자음 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등근’은 용언의 어간 말씀 ‘근’이 ‘-’앞에서 탈락되었으며, 이는 자음 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38. [출제의도] 인용절 파악하기

‘이곳’은 직접 인용절의 발화자인 친구의 입장에서 기술된 지시 표현이고,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이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으로 바뀔 경우 ‘이곳’은 ‘나’의 입장에서 기술된 ‘그곳’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39. [출제의도] 보조 용언이 드러내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에서 ‘있을까 싶다’는 보조적 연결 어미 ‘-을까’와 보조 용언 ‘싶다’의 구성으로 쓰여 친구들이 동작을 있을까 걱정하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가)는 인터넷 강연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나)는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한 대화를 통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정보 생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용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수용자

가 또 다른 정보 생산자가 되어 정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특수 문자(^^)와 한글의 자음자로 된 기호(ㅎㅎ)를 사용하여 정보 생산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나)이다. ④ (나)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이 5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표현 파악하기

(가)의 ‘강연자’는 띄어 표현 ‘되다’를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자극하다’의 대상인 ‘너’의 인지와 감정 영역에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다.

① ‘링크를 누르시면’의 종속적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앞 절의 내용이 ‘답’을 할 수 있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나’는 수량이 많거나 정도를 넘거나 한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지난 10년 사이 성인의 독서율 감소 정도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접속 부사 ‘그래서’를 활용하여 뒤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에 이어지는 내용임을 드러냄으로써 강연 내용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맷글 4는 ‘전공 서적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 나머지 오디오북의 장점인 휴대성을 언급하며 ‘진짜 편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독서 접근 기회가 높아진다는 강연 내용에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

① 맷글 1은 현재 오디오북으로 제공되고 있는 책의 수가 적어서 아쉬웠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맷글 2는 운동할 때 오디오북을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독서가 가능하다는 강연 내용에 공감하며, 무료 오디오북이 제공되는 사이트를 알려 주고 있다. ③ 맷글 3은 오디오북이 지닌 편의성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⑤ 맷글 5는 흥미 위주의 책을 읽는 경우와 공부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로 독서의 목적을 나누어, 오디오북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구성의 적절성 파악하기

‘다정’은 오디오북이 독서 풍기를 유발한다는 강연 내용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들어 설득력을 높이고자 말하면서, 그 근거로 오디오북 독자의 39%가 종이책이나 전자책 독서량도 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발표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발표 자료의 공정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시하고자 하는 근거 자료가 오디오북의 장단점을 다룬 자료도 아니다.

① ‘수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도와주자’는 발표 목적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는 청중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1]에 성인의 독서 저해 요인 그래프 외에 학생의 독서 저해 요인 분석 그래프를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② ‘동욱’은 [슬라이드 2]에 스마트폰이 독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중심 문구를 효과음과 함께 제시하여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자 한다. ④ ‘해찬’은 [슬라이드 4]를 영상과 문자를 활용한 복합적 양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⑤ ‘형준’은 발표 자료의 청중인 ‘우리 학교 학생들’, 즉 청소년에게 유의한 정보가 담긴 오디오북 플랫폼을 찾아 정리하여 [슬라이드 5]를 구성하려 한다. 이는 발표 자료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며, 많은 정보들 중 유용한 것을 선별하려는 것이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가)의 블로그에 첨부한 파일은 과학 동아리에서 작성한 관찰 일지를 예시 자료로 제공한 것이지,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한 것은 아니다. 또한 추가 자료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인터넷 매체 특성상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맷글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공감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학교 숲의 사진으로 만든 동영상은 제시되어 실제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④ 학교 숲 사진과 텃밭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다. ⑤ ‘이 프로젝트에 공감하신다면 ‘공감하기’를 눌러 주시고’에서 ‘공감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앱의 구성 요소를 수정할 때, (나)에서는 ‘학교 숲’과 ‘학교 텃밭’으로 항목을 나누고 각각 연도와 학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보기>에서는 ‘학교 숲 사진’과 ‘학교 텃밭 탐구 자료’로 항목을 나누고, 각각 계절과 식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수정하기 전인 (나)에서도 ‘학교 숲’과 ‘학교 텃밭’ 항목은 구분되어 있었다.

① (나)의 ‘우리 학교 프로젝트’ 앱의 제목은 수정 후, ‘우리 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을 담다!’라는 프로젝트 제목을 활용하고 ‘○○고등학교’라는 학교명을 기재하여 앱 제목을 변경하였다. ③ (나)의 학년별로 나눈 ‘학교 텃밭’ 항목의 메뉴는 수정 후 식물의 종류로, 그 기준이 바뀌었다. ④ (나)의 연도별로 구분한 ‘학교 숲’ 항목은 수정 후, 계절별로 메뉴를 구성하였다. ⑤ (나)의 ‘묻고 답하기’ 항목은 ‘자료 더하기’ 항목으로 바꾸어 자료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 변동은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이다. 음운 변동 중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경음화가 있는데, 이들은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에서 적용 양상의 차이가 있다. 우선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다른 하나의 자음이 오면 평파열음인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밖→[박]’, ‘꽃→[꼇]’, ‘잎→[입]’이 그 예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ㄱ, ㄷ, ㅂ, ㅅ’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으로, ‘곶→곶’, ‘빋→빋’이 그 예이다. 이는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비음화는 평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국물→[궁물]’, ‘반는→[반는]’, ‘입는→[임는]’은 현대 국어에서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비음화는 현대 국어에서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ㄷ’의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노라→문노라’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ㄷ’의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에서 비음화는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실현되기도 했다. ‘븐는→븐는→븐는’, ‘냥늑니→냥늑니→냥늑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ㅌ’, ‘ㅎ’이 ‘ㄷ’으로 바뀐 후 비음화가 실현된 예이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ㅂ’의 비음화는 드물게 확인되고, ‘ㄱ’의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음화는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현대 국어의 경음화에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어간 끝 ‘ㄴ, ㄹ’ 뒤의 경음화,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ㄹ’ 뒤의 경음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등이 있다. ‘국밥→[국뻬]’, ‘더듬지→[더뎡지]’, ‘발달→[발뎡]’, ‘할 것을→[할꺼슬]’이 그 예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에서는 ‘갈 띠→갈 띠’에서 처럼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가 흔히 일어났다.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되나 표기에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한자어에서 유음 뒤의 경음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의 ‘견는→건는’은 ‘ㄷ’의 비음화가 일어난 예일 것이다.
 - ②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의 ‘막-+-노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현대 국어의 ‘ㄱ-ㅇ’, ‘ㄷ-ㄴ’, ‘ㅂ-ㅁ’은 동일한 조음 위치의 ‘평파열음-비음’에 해당하는 쌍일 것이다.
 - ④ 15세기 국어의 ‘안-+-계’, ‘곰-+-고’에서는 모두 어미의 평음 ‘ㄱ’이 경음 ‘ㄱ’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 ⑤ 15세기 국어의 ‘장-+-노라’, ‘빋+나다’에서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36.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다음 제시된 현대 국어 자료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설명해 봅시다.

㉠ 겉멋만 → [건먼만] ㉡ 꽃식물 → [꼇쌩물]

㉢ 낮잡는 → [낱짚는]

학생: _____ [A] _____

- ①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 ②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 ③ ㉡, ㉢에서 일어난 경음화는 평파열음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 ④ ㉠과 달리 ㉡,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습니다.
- ⑤ ㉢과 달리 ㉠, ㉡에서는 ‘ㄹ’으로 인해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37. <보기>의 ‘복합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복합어]

헛수고, 어느새, 툇질, 마음껏, 꺾쇠, 지우개

[분류 과정]

둘 이상의 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

아니요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해 주나요?

↓

아니요

예

↓

㉠

예

↓

㉡

접사가 어근의 뒤에 붙어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나요?

↓

아니요

예

↓

㉢

아니요

↓

㉣

- | | |
|--|--|
| <p>㉠ 어느새, 꺾쇠</p> <p>㉡ 헛수고, 어느새</p> <p>㉢ 툇질, 꺾쇠</p> <p>㉣ 툇질, 마음껏, 꺾쇠</p> <p>㉤ 어느새, 툇질, 꺾쇠</p> | <p>㉡ 마음껏, 지우개</p> <p>㉢ 지우개</p> <p>㉣ 헛수고, 마음껏</p> <p>㉤ 헛수고</p> <p>㉥ 지우개</p> |
|--|--|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어머니는 아들이 비로소 대학생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 파수꾼이 경계 초소에서 본 동물은 늑대는 아니었다.
 ㉢ 감독이 그 선수를 야구부 주장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 ① ㉠에는 안긴문장에 보어가 있고, ㉡에는 안은문장에 보어가 있다.
- ② ㉠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사용된다.
- ③ ㉡과 달리 ㉢의 안긴문장의 서술어는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 ④ ㉢과 달리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은 모두 안긴문장의 주어와 안은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39.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습 활동]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용언의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다.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을 생각해 보면서 용언의 활용 양상을 설명해 보자.

[예문]

	㉠ 규칙 활용의 예	㉡ 불규칙 활용의 예
㉠	형은 교복을 <u>입어</u> 보았다.	꽃이 <u>아름다워</u> 보였다.
㉡	나는 언니에게 죽을 <u>썩어</u> 주었다.	오빠는 나에게 밥을 <u>떠</u> 주었다.
㉢	누나는 옷을 벽에 <u>걸어</u> 두었다.	삼촌은 눈길을 <u>걸어</u> 집에 갔다.
㉣	동생은 그릇을 <u>씻어</u> 쟁반에 놓았다.	이 다리는 섬과 육지를 <u>이어</u> 주는 역할을 한다.
㉤	우리는 짐을 <u>쌓아</u> 놓았다.	하늘이 <u>파래</u> 예뻐다.

- ①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ㅂ'이 달라졌다.
- ②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ㅌ'가 없어졌다.
- ③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ㄷ'이 달라졌다.
- ④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ㅅ'이 없어졌다.
- ⑤ ㉤: ㉠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ㅎ'과 어미가 모두 없어졌다.

[40~42] (가)는 지역 신문사의 웹 페이지 화면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홍보 인쇄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군민일보 본문 듣기 SNS로 전달

○○군청, 못난이 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개최
(최초 입력 2022.09.16. 09:37:53 / 수정 2022.09.16. 10:12:34)
 김△△ 기자

㉠○○군청에서 지역에 있는 배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군청은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 배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 달간 진행되며, ○○군 소재 배 재배 농가의 70%가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태풍과 이상 기온 현상으로 ○○군에서 수확한 배 중 규격 외 배(이하 못난이 배)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못난이 배는 크기나 모양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흠집이 있어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배를 말한다. 일반 상품과 비교하여 맛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것은 판매가 어려워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청에서는 일반 배뿐 아니라 못난이 배와 못난이 배로 만든 가공식품의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다.

캠페인을 앞두고 ○○군 내 배 재배 농가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배 재배 농민 최□□ 씨는 "좀 못나도 다 제 자식 같은 배입니다. ㉣맛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 안심하고 못난이 배도 많이 사 주세요."라고 말했다. ㉤○○군수는 배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처인 '○○ 온라인 알뜰 장터' 운영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특히 이곳에서는 못난이 배를 일반 상품의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배와 배 가공식품은 특산물 직판장과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 <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 >

😊
좋아요 27

😄
유용해요 17

😞
슬퍼요 1

🙏
후속 기사 원해요 9

■ 관련된 기사로 바로 가기(클릭)

- 기관지염, 고혈압 등에 효능이 좋은 배
- [현장 스케치] ○○군 배 공동 선별 센터 작업 현장에 가다

(나)

좀 못나도 다 제 자식 같은 배입니다. ○○군 못난이 배 많이 사 주세요.

맛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으로

못난이 배란?
크기나 모양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흠집이 있는 배를 말합니다.

못난이 배를 구입하는 방법
○○군 특산물 직판장에 방문하거나

○○ 온라인 알뜰 장터

🔍

검색해 접속하여 구입

배 가공식품 소개 웹 페이지

40. (가)의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본문 듣기'가 있는 것을 보니, 수용자가 기사의 내용을 음성 언어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SNS로 전달'이 있는 것을 보니, 수용자가 기사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최초 입력'과 '수정' 시간이 있는 것을 보니, 생산자가 기사를 입력한 이후에도 기사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이 있는 것을 보니,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기사의 유통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관련된 기사로 바로 가기'가 있는 것을 보니, 수용자가 기사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1.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품의 온라인 판매처를 소개하기 위해, (가)에 언급된 못난이 배의 온라인 판매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해야지.
- ② 상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에 언급된 못난이 배의 맛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배의 모양을 활용하여 도안된 그림으로 제시해야지.
- ③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가)에 언급된 배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웹 페이지 주소를 QR코드로 제시해야지.
- ④ 상품의 소비를 촉구하기 위해, (가)에 제시된 농민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말풍선의 문구로 제시해야지.
- ⑤ 상품의 의미를 밝혀 주기 위해, (가)에 제시된 못난이 배의 뜻을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야지.

4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격 조사 '에서'를 활용해 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가 '○○군청'임을 나타냈다.
- ② ㉡: 연결 어미 '-거나'를 활용해 못난이 배의 판정 기준과 흡집에 관한 내용이 인과적으로 연결됨을 나타냈다.
- ③ ㉢: 지시 대명사 '이것'을 활용해 앞에서 언급한 '일반 상품'을 가리키고 있음을 나타냈다.
- ④ ㉣: 보조사 '도'를 활용해 판매하는 상품이 못난이 배로 한정됨을 나타냈다.
- ⑤ ㉤: 관형사형 어미 '-르'를 활용해 ○○군수가 오래전부터 온라인 알뜰 장터의 운영을 지원해 왔음을 나타냈다.

[43~45] 다음은 안전 교육을 위한 교내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험실 안전 교육을 위해 △△ 안전연구소의 김○○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교육을 잘 듣고 앞으로는 안전한 실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학교 실험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76%는 학생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먼저 영상을 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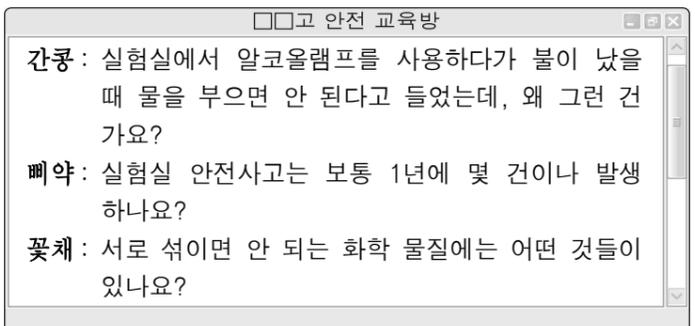


이 영상은 어느 대학 실험실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실험을 하다가 얼굴에 부상을 입은 학생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험복, 보안경, 보호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 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실험실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이 큰 화재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보도한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 사례는 학생이 실험 중에 서로 섞이면 안 되는 두 화학 물질을 임의로 섞다가 폭발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험실에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것이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병 안에 든 것은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데,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실에서는 작은 실수나 방심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험을 할 때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진행자: 알려 주신 내용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 안전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학생들의 질문은 채팅방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누리 소통망의 검색창에 '□□고 안전 교육방'을 검색하여 참여해 주세요.



많은 분이 채팅방을 통해 참여하고 계시네요. '간콩' 님이 알코올램프 화재와 관련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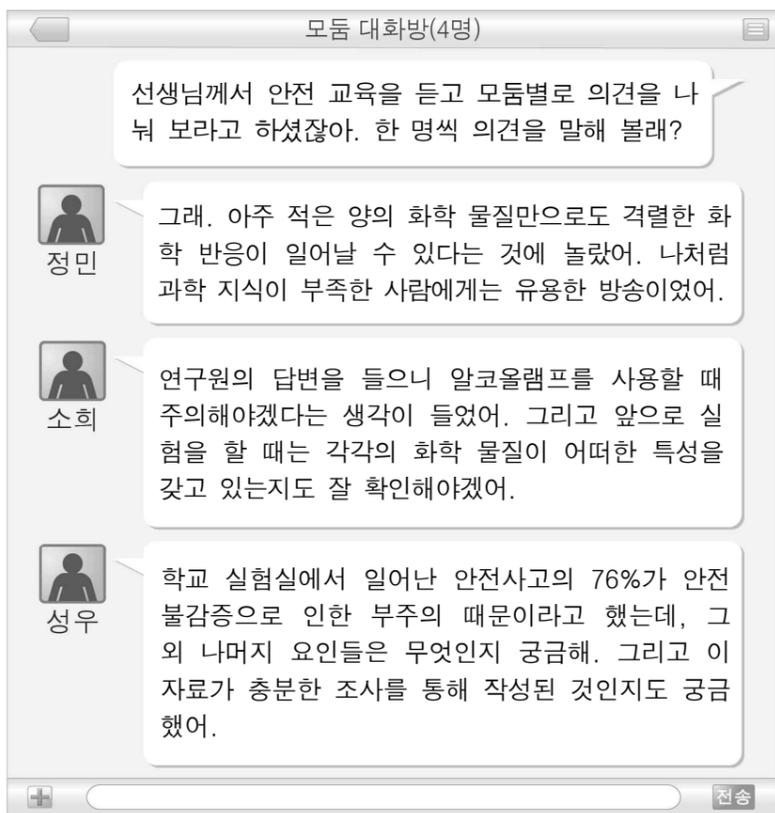
연구원: 불이 붙은 알코올에 물을 부르면 두 물질이 섞여 불이 더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불이 붙으면 모래나 소화기를 이용해서 끄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삐약' 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43. 위 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상 자료를 활용하며 실험실 안전사고의 실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통계 자료를 활용하며 학교 실험실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활용하며 안전사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 ④ 채팅방을 활용하며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진 의문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 ⑤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활용하며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44. 다음은 위 방송을 시청한 학생들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민'은 연구원이 언급한 사례와 관련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② '소희'는 연구원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험할 때의 유의 사항에 관한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③ '소희'는 연구원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타당한지 점검하였다.
- ④ '성우'는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와 관련하여,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 ⑤ '성우'는 연구원이 활용한 자료와 관련하여, 학생을 위주로 한 예방 대책의 장단점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45. 다음은 위 방송을 본 후 과학 실험 동아리 학생이 신입생 교육용으로 만든 발표 자료의 초안이다.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제시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초안>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p>1 첫 번째 수칙</p> <p>안전 장비를 잘 갖추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복과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2) 보호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3) 실험실에 비상 샤워기를 설치하세요.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p>2 두 번째 수칙</p> <p>화학 물질을 다룰 때는 주의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 물질을 함부로 혼합하지 마세요. 2) 화학 물질의 냄새는 직접 맡지 마세요. 3) 실험실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p>III. 세 번째 수칙</p> <p>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알코올램프 관련 화재는 모래나 소화기를 이용해 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응급 상황 시 정해진 처리 과정에 따라 조치하세요.

<검토 의견>

슬라이드 1	a - 발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
슬라이드 2	b - 학교에 요청할 사항임.
슬라이드 3	c -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임.
슬라이드 4	d - 다른 슬라이드와 형식이 다름.
	e - 내용과 어울리는 이미지가 필요함.

- ① 슬라이드 1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a를 '안전한 실험을 위한 세 가지 수칙'으로 수정해야겠군.
- ② 슬라이드 2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b를 삭제해야겠군.
- ③ 슬라이드 3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c를 슬라이드 2로 이동해야겠군.
- ④ 슬라이드 4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d를 슬라이드 2, 3의 형식과 통일하여 제시해야겠군.
- ⑤ 슬라이드 4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e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미지로 교체해야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전문]에서 '친해지길 바라' 행사가 언제, 어디에서, 왜 진행되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육하원칙을 모두 지켜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는 점검 결과 '예'는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고쳐 쓴다.

[A]를 고쳐 쓴 <보기>는 학생회장이 행사를 통해 바라는 점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내용은 (나)의 앞 부분에서 행사를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학생회장의 말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그리고 <보기>에 '친해지길 바라' 행사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43. [출제의도] 내용 조직 방법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초고의 3문단에서 숲 가꾸기의 방법을 나열을 끊어 내는 것, 낮은 위치의 나뭇가지를 쳐 내는 것, 생장이 나쁜 나무를 솎아 내어 큰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것으로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1문단에서 산불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면적이 넓어지고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② 초고의 2문단에서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나누어 산불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산불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초고의 2문단에서 수관화의 개념을 사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초고의 3문단에서 산불 확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숲 가꾸기와 내화 수림대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비의 방식으로 산불 확산을 해결하는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초고의 2문단에서는 산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바람과 지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II는 신문 기사로 사례를 통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림과 토양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여 준다. III-2는 침엽수인 소나무와 활엽수인 떡갈나무에 불이 붙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자료로, 소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떡갈나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II와 III-2에서는 산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토양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2문단에 산불을 확산시키는 요인에 바람과 지형 외에 토양과 수종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I은 전문가 인터뷰로 수관화가 발생하면 불기운이 강하고 비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산불이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수관화가 발생하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II는 신문 기사로 사례를 통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를 1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 III-2는 침엽수인 소나무와 활엽수인 떡갈나무에 불이 붙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자료로 소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떡갈나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를 활용해 내화 수림대 조성에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사용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④ I은 전문가 인터뷰로 수관화가 침엽수림에서 많이 일어나므로 산림 정책을 펼칠 때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된 혼효림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산림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III-1은 우리나라의 나무 종류별 산림 면적을 보여 주는 자료로 침엽수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 준다. I과 III-1을 활용해 산불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산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숲 가꾸기와 내화 수림대 조성은 산불 확산 방지 방법인데, 이를 '방패'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그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 확산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산불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어와 매체]

35	㉔	36	㉕	37	㉖	38	㉗	39	㉘
40	㉙	41	㉚	42	㉛	43	㉜	44	㉝
45	㉞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의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15세기 국어의 '찰--노라'(진노라)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빛+나다(빛나다)'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나고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36.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사례를 적용한다.

'결맞만→[건만만]', '꽃식물→[꼇식물]', '낫잡는→[난잡는]' 모두에서 음절 끝의 자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을 파악한다.

㉔ '어느새'는 어근 '어느'와 어근 '새'로 구성되어 있다. '쨌'는 어근 '쨌-'과 어근 '새'로 구성되어 있다. ㉕ '마음껏'은 어근 '마음'과 접미사 '-껏'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접미사 '-껏'은 명사인 어근 뒤에 붙어서 품사를 부사로 바꾸어 준다. '지우개'는 어근 '지우-'와 접미사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접미사 '-개'는 동사인 어근 뒤에 붙어서 품사를 명사로 바꾸어 준다.

[오답풀이] '헛수고'는 접두사 '헛-'과 어근 '수고'로 구성되어 있다. '툭질'은 어근 '툭'과 접미사 '-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접미사 '-질'은 어근의 뒤에 붙지만 품사를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38.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

㉔에서 안근문장의 주어는 '아들이'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어머니'이다. ㉕에서 안근문장의 주어는 '과수꾼'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동물'이다. ㉖에서 안근문장의 주어와 안은문장의 주어는 모두 '감독이'이다.

39.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양상을 이해한다.

㉔에서 '파랗다'가 '파래'가 된 것은 불규칙 활용이지만, 어간의 'ㅎ'과 어미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㉔에서는 어간 '입-'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㉕에서는 어간 '아름답-'의 'ㅂ'이 달라졌다. ② ㉖에서는 어간 '쑤-'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㉗에서는 어간 '푸-'의 'ㄷ'가 없어졌다. ③ ㉘에서는 어간 '걸-'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㉙에서는 어간 '결-'의 'ㄷ'이 달라졌다. ④ ㉚에서는 어간 '씻-'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㉛에서는 어간 '잇-'의 'ㅅ'이 없어졌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기사 아래에는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이 있어, 수용자는 기사를 본 자신의 반응을 표시할 수 있고 생산자는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가 기사의 유통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가)에 언급된 못난이 배의 맛에 대한 정보는 (나)에

사각형 안의 문구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는 배의 이미지가 담긴 그림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그림에 못난이 배의 맛과 영양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나)에는 '○○ 온라인 알뜰 장터'가 입력된 인터넷 검색창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못난이 배의 온라인 판매처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④ (나)에는 농민 최○○ 씨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말풍선 안의 문구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못난이 배의 소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⑤ (가)에 제시된 못난이 배의 뜻은 (나)에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못난이 배의 의미를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다.

42. [출제의도] 매체에 사용된 표현을 이해한다.

격 조사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낸다. ㉔에 사용된 '에서'는 격 조사로, 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가 ○○군청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활용하여 실험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를 보여 주며, 실험을 할 때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활용하며 안전사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실험실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실험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실제 사례의 영상과 실험실에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폭발 사고의 실제 사례를 다룬 영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며 학교 실험실 안전사고의 76%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연구원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보여 주며, 화학 물질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실험할 때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수용자의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성우'는 연구원이 학교 실험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가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인지 궁금해하며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오답풀이] ① '정민'은 방송에서 다른 내용이 자신에게 유용한지를 점검하고 있지만, 음급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소희'는 연구원의 답변을 듣고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실험할 때의 유의 사항에 관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⑤ '성우'는 연구원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나, 학생을 위주로 한 예방 대책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㉔는 상위 항목인 '화학 물질을 다룰 때는 주의하세요.'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슬라이드 4'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슬라이드 2'로 이동해야겠다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슬라이드 2~4의 제목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에 적합하게 ㉔를 '안전한 실험을 위한 세 가지 수칙'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㉔는 실험 도구의 이미지이다. 음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이므로 내용에 어울리는 이미지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